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대중교통·월세 공제 '쑥↑'

### 대중교통 공제율 40%→80%로 2배·월세 12%→17%로 상향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자 늘어날 듯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공제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5일 국세청 최근 배포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을 예상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거본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거본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됐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

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소비증거본과 전통시장 소비증거본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거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만약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원룸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기존 102만원으로, 개정 전 72만원보다 30만원 증가한다. 이밖에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삼성전자 'CES'서 '초(超)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 모델이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 삼성전자 전시장 입구의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가능', '스마트싱스', '파트너십'을 키워드로 '초(超)연결 경험'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 기준금리 인상에...가계 금융자산 예금 늘고·주식 줄었다

### 저축성예금 1년 새 17조원 ↑

최근 금리 상승과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여유티 돈을 주로 예금에 넣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자금 운용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33조9000억원)와 비교해 1년 새 7조4000억원 줄었다. 문혜정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3분기 가계 여유티 돈(순자금 운용액)이 감소한 데 대해 "일상 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가계 금융자산으로 순운용한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했지만, 실제로 작년 3분기 민간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증가율이 2021년 3분기(5.8%)의 약 두 배로 높아졌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3분기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37조6000억원)도 1년 전(84조100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특히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조2000억원)가 직전 분기(18조9000억원)나 2021년 3분기(24조6000억원)와 비교해 급감했다.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가계는 작년 3분기 국내외 주식을 5조6000억원어치 사들였는데, 이는 전년 3분기(27조7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이나 적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가계의 장기(만기 1년 초과) 저축성예금은 1년 사이 19조7000억원에서 37조원으로 불었다. 이에 따라 2021년 2분기 21.6%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던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투자펀드의 비중은 작년 3분기 17.9%까지 떨어졌다. 반면 예금(43.6%) 비중은 1년 전(40.7%)이나 직전 분기(43.1%)보다 늘었다. 아울러 가계는 지난해 3분기 총 11조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액이 1년 전(50조2000억원)보다 39조2000억원 줄었다. 자금조달액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발린 차입금(대출)이었다. 대출 역시 2021년 3분기(49조4000억원)와 비교해 급감했다. /연합뉴스

##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연장

### 경영 악화시 최장 9개월 연장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25일까지지만, 국세청은 설 연휴(21~24일)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7일까지 이를 연장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작년 10~12월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12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코로나19, 재난 피해,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8일 이른 2월 3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도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26일보다 9일 이른 2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고를 줄이고 홈택스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세무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aT, 화순서 농수산물식품 산업 발전 방안 모색

### 김춘진 사장 첫 행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의 하나로 화순을 찾아 농수산물 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화순 도곡농협을 방문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로컬푸드 직매장,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를 살펴봤다. 도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산지 복합시설이다. 파프리카, 딸기, 복숭아 등 화순군 농특산물을 대형마트에 직

접 납품하고 있다. 우리온실 식물정원원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에서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뿐만 아니라 엽채류, 화훼 등 50여 종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지역 700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도시민이겐 힐링과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총 부지면적 3628㎡(1097평)에 들어선 도농상생센터는 1328㎡(402평) 규모 유리 온실과 로컬푸드 체험·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